

한전, 기자재관리 '제재→예방' 중심 대전환

30년만 개편...규제완화·현장부담 경감 초점
품질 검증 유지 속 공급망 관리체계 재설계
중소기업 지원 확대...비용·인력 기준 완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기자재 공급망 관리 체계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며 '제재 중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품질 검증 체계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전력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등록·품질관리 중심의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제재 기간

삭제와 시정조치 절차 도입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면 개정이다. 그간 변압기·개폐기 등 약 1600개 주요 기자재에 대해 제조능력과 품질체계를 사전 검증한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해 온 기준 틀은 유지하되, 제재 일련도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 효율성과 현장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로 바뀐다.

우선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와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 등 기존 제재 기간을 삭제하고, 입찰담합·서류 위조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 입찰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대신 변경 승인 미이행이나 수시심사 부적합 등 일부 항목에는 소명과 시정 기회를 부여해 일정 기간 내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품질 관리 기준은 유지된다.
전력 기자재는 도로·주택·건물 등 생활 공간에 밀접하게 설치되는 만큼 불량 발생 시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제검증 절차를 통한 품질 관리가 지속된다.
연간 25만건에 달하는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 작업과 일평균 1만7900여명의

작업자 안전을 고려할 때 품질 확보는 필수라는 판단이다.
정전 발생 시 산업계 전반으로 파급되는 영향도 고려됐다.
반도체·화학·제조 공장 가동 중단과 데이터센터 장애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기자재 품질 관리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한전은 2006년 도입한 품질등급제를 통해 공급사의 하자율과 고장률, 검사 불합격률 등을 평가하고, 우수 업체에는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국내 전력 기자재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은 북미 중심

시장에서 2025년 약 160억달러(약 24조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향후 5~6년간 수주 잔액도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품질 관리 정책이 산업 경쟁력 제고의 촉매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배전 기자재 공급사의 필수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재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일괄 1년에서 3개월~1년으로 차등화해 부담을 줄인다.
또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최초 1회 지원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공급망 전반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식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기

준 미달 시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사전 점검과 현장 컨설팅, 개선 유도 절차를 통해 공급사의 자발적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단순 규제 집행을 넘어 품질 관리의 '동반 성장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전은 다음 달 개정안을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 안전과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품질 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산업 협력 구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대형마트, 고물가 속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낮춘다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행사
고객 구매 맞춤형 혜택 마련



롯데마트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롯데마트·롯데슈퍼·창고형 할인점 맥스(MAXX)·온라인몰 제타(ZETTA) 등 전 채널에서 상반기 최대 규모 쇼핑 행사 '메가통큰'을 진행한다.

연이은 고물가 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나사로 있다.
24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창립 28주년을 맞아 '메가(Mega)'급 물량과 '통큰'가격을 앞세워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오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상반기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 '메가통큰'을 개최한다.
'메가통큰'은 롯데마트의 상징인 '통큰' 브랜드에 압도적 규모를 뜻하는 '메가(MEGA)'를 결합한 명칭이다.
이번 '메가통큰'은 인기 먹거리를 중심으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선사하는 연중 최대 규모 행사다. 특히 고유가·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난 창립 행사보다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신선식품부터 가정간편식(HMR), 가공식품까지 수요가 높은 필수 품목을 엄선해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과 계란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각각 6%, 6.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한우와 계란 등 일상 먹거리 중심으로 연중 최저가 수준의 물량을 전면 배치했다. 행사 1주차인 26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한우 전 품목'을 행사카드 결제 시 5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외식물가 완화를 위해 대표 인기 상품인 '큰 치킨'을 행사카드 결제 시 정상가의 절반인 7495원에 내놓는다.
이밖에도 롯데마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 이슈 상품과 초가성비 라인업도 풍

성하게 준비했다. 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2주차 행사에서도 '반값 혜택'은 계속된다.
홈플러스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주요 장보기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혜택을 높인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 한해 '미국산 초이스 냉동 LA식 꽃갈비'를 1만원 할인한 5만4900원에 팔고, '미국산 갈비

살'은 40% 할인된 3480원에, '청도 미니리(봉)'는 2000원 할인해 2990원에, 싱싱한 '통영 햇명게(120g)'는 50% 할인해 4990원에 내놓는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요소를 비교해 선택하는 소비 흐름에 맞춰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을 엄선해 행사를 구성했다"며 "고객 구매 패턴에 맞춘 방식으로 혜택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y1404@gwangnam.co.kr

"AI 도입 성패, CEO·임원 이해도 좌우" 장동인 AIBB LAB 대표, 광주상의 경제포럼 강연

"인공지능(AI) 도입 성패는 전문가가 아닌 CEO와 임원의 이해도에 달려 있습니다."
AI 및 빅데이터 전문가인 장동인 AIBB LAB 대표는 24일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옛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주관 '제228차 광주경제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AI 기반 생산성 혁신 및 중소·중견 기업 DX 전략' 주제 강연에서 장동인 대표는 경영진이 단순 의사결정자가 아닌 '직접 활용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AI를 이해하고 프롬프트를 활용해 업무 개선을 이끌어야 조직 전반의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AI 도입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



장동인 AIBB LAB 대표는 24일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주관 '제228차 광주경제포럼'에서 강연했다.

는 이유로 '고립된 프로젝트 운영'과 '현업 부서 참여 부족'을 지적했다. AI 전담 조직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현업 부서와 공동 목표(KPI)를 기반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내부 인력을 중심으로 AI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도입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수용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성원이 거부감 없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직 내 변화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회원모집 안내

(단위:백만원)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 특전
VVIP (A형)	700	3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 료회차 25회 (비회원 지정회원 위임시 70%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액형 / 1일 1회)
VVIP (B형)	700		- 회원일일, 무기명 1매, 골프텔 할인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 (1회 4인, 1일 기준 / 월 5회 소액형 / 1일 1회)
VIP 정회원	500	1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0회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액형 / 1일 1회)
하트 정회원	320	10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72회 (월 6회 소액형 / 1일 1회)
해피 정회원	180	4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36회 (월 3회 소액형 / 1일 1회)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 레스토랑 중 · 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회,대) 또는 대중제 선택
- 접수기간 2025.10.14.(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원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킹 신청서 작성
(신청서 : 해피니스cc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이메일 접수 : syyoon1@happinesscc.co.kr

· 골프호텔 객실

